

백제가요 정읍사 '망부석' 위치 찾았다

이도형 정읍시의원·향토사학자
400년전 조선시대 고지도서 확인
2개 지도 모두 '고부 두승산' 표기



이도형(왼쪽) 정읍시의원과 지역향토사학자곽형주씨가 백제가요 정읍사 여인 '망부석'의 위치가 확인된 고지도를 들어보이고 있다.

"달하 노피곰 도다샤 어귀야 머리곰 비치오사라" 행상을 떠난 남편을 기다리고 격정하다 돌이 되었다는 백제가요 '정읍사' 여인을 일컫는 '망부석'의 위치가 구체화되고 있다.

이도형 정읍시의원은 400년 전 2종의 조선시대 고지도에서 정읍사 여인 망부석의 위치를 모두 발견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의원이 발견했다고 제시한 지도는 보물 제 1596호 '동여비고(東輿備攷)'와 '지나조선고지도(支那朝鮮古地圖)'다. 이 두 지도의 제작 추정연도는 각각 1682년과 1623년이다.

동여비고는 함경도에서 제주도까지의 전국 도별도 및 군현도 등 32종의 지도를 수록한 지도책으로 지난 2008년 국가 보물로 지정됐다.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지나조선고지도는 1책 248장으로 구성됐으며 중국과 조선의 역사적 사실을 지도로 제작한 역사지도책이다.

이 의원은 두 가지 자료와 함께 '동여고실(東輿考實)'의 망부석 위치를 제시했지만, 동여고실의 경우 동여비고의 필사본으로 추정된다. 이 의원은

을 중심으로 북서에서 북동 방향 대략 4km 지점 여단가로 추정하고 있었을 뿐이다.

이 때문에 현재까지 북면 승부리 일원, 신태인-북면 고개, 농소동 비네골, 망제동 일원 등이 유력하게 거론됐고, 이외에도 교암초등학교 동쪽과 현정읍사공원 등이 망부석 위치라 주장하는 이들도 있었다.

이 의원은 고지도 검색을 통해 지역별 군현지도에는 좀 더 자세한 내용이 있을 것으로 보고 지난 2월부터 1개월 동안 조사활동을 벌였다.

하지만 지도 상의 망부석 위치가 확인되지 않아 안타까워하던 차에 향토사학자로 활발히 활동 중인 곽형주 씨의 도움으로 '동여고'와 '지나조선고지도'를 접하면서 고지도 상의 망부석 위치를 대략이나마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이 의원은 "역사와 그 역사의 흔적은 강자에 의해 쓰여지고 남겨져 내려오는 특성 때문에 초가집은 남지 않고 고대 왕실과 같은 기와집 위주로 남겨지는 것이 일반적"이라면서 "민초들의 이야기로 만들어진 노래(정읍사)가 고려왕실을 거쳐 조선왕실까지 수제전(백제가요 정읍사를 노래한 궁중악)을 통해 이어져 왔다는 것은 위대한 일이라 해도 손색이 없다"고 정읍사의 가치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어 "그 상징인 망부석을 찾고 기리며 보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고창군은 아산면 주진천과 선운천, 공음면 칠암천의 하천재해예방 공사를 본격 추진한다. <고창군 제공>

고창군, 주진천·선운천·칠암천 하천정비사업

777억원 투입... 이달 중 착공

고창군은 아산면 주진천·선운천(반암리-하갑리, 삼인리), 공음면 칠암천(칠암리-석교리) 하천정비사업을 이달 착공한다고 7일 밝혔다.

고창군은 3개 사업구간에 총 사업비 777억원을 투입해 2023년까지 하천정비 14.5km(제방19.8km), 교량 재설치 24개소 등을 추진한다.

이 사업을 통해 자연형 호안, 수변공간 등이 있는 생태하천으로 가꿔내 인근 주민들에게 친수공간을 제공하고 지역과 어울리는 자연친화적 하천

공간을 조성한다.

특히 사업이 완료되면 침수 우려지역의 주민 불안감 해소는 물론, 인근 세계문화유산인 고인돌 유적지와 선운산도립공원, 운곡습지를 연결하는 아름다운 주진천의 매력을 지역주민과 외지 방문객들에게 소개할 예정이다.

고창군 관계자는 "자연재해로부터 군민과 생명을 보호하고 지역 특성을 고려한 친환경적인 하천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형호 기자 khj@kwangju.co.kr

남원 유곡리·두락리 가야고분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성큼'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심사가 진행 중인 남원시 유곡리와 두락리의 가야고분군.

<남원시 제공>

신청서, 유네스코 완성도 검사 통과
서류·현장실사... 내년 7월 최종결정

남원 유곡리·두락리 가야고분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에 한 걸음 더 다가갔다.

남원시는 지난 1월 제출한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가 프랑스 파리 소재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의 완성도 검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완성도 검사는 접수된 등재신청서가 형식 요건

에 만족하는지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서 검토하는 과정이다. 이 단계를 통과해야만 본격적 세계유산 등재 심사 절차가 진행된다.

앞서 문화재청은 지난해 12월 남원시와 전북도를 비롯한 가야고분군세계유산등재추진단이 제출한 신청서를 최종 검토해 지난 1월27일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 제출했다.

'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 제140항에 따라 완성도 검사를 통과한 신청서는 3월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자문기구의 서류검사, 현장실

사, 2차례의 종합 토론 심사를 거쳐 내년 7월 개최 예정인 제46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등재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일정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이한주 남원시장은 "가야고분군의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가야고분군 세계유산등재추진단, 문화재청 세계유산팀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다"며 "오는 9월 예정된 현지실사를 비롯한 심사 과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유진섭 정읍시장 "내장사 화재 수습 지원 총력"

유진섭 정읍시장이 천연고찰 내장사의 대웅전 화재사고 수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유 시장은 지난 5일 오후 내장사 대웅전 화재 소식을 접하자마자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내장사로 달려가 화재사고 수습에 힘을 쏟았다.

유 시장은 화재 현장에서 정읍소방서로부터 화재발생 전반과 진화 상황을 지켜보면서 정읍시 등 관계자들에게 향후 화재 사고 수습과 대책 등 논의할 관련기관과 긴밀히 협의하고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대웅전 진화가 완전히 끝나고 주변이 어느정도 정리되면 사고수습을 위한 모든 행정적 지

원방안을 모색하고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며 "앞으로 관련 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방화사건 수사부터 대책 마련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챙겨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오후 6시40분께 50대 승려 A씨의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나 내장사 대웅전이 전소됐다. 지난 2012년 10월 31일 발생한 화재 후 9년 만에 또 다시 완전히 소실돼 붕괴됐다.

다행히 전라북도 유형문화재인 조선 동종과 전라북도 기념물인 내장사지, 천연기념물인 내장산 굴거리나무 군락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익산시, '감사위원회' 구성 첫 위원장에 함경수씨 선임



익산시는 독립적 감사기구인 감사위원회 초대 위원장에 함경수(60·사진) 씨를 선임하고 본격적 운영에 들어간다고 7일 밝혔다.

함 감사위원장은 행정안전부, 미래창조과학부, 인천광역시 등에서 오랫동안 감사, 계약, 회계 분야

업무를 수행해 온 전문가라고 익산시는 설명했다.

감사위원장 임기는 2년이다. 앞서 익산시는 행정에 대한 신뢰도와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독립적 감사기구인 감사위원회를 도

입하기로 했으며, 지난 1월 전문가 4명을 위원으로 위촉했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난처한 순간

정확한 과실비율 정보로
명쾌한 순간

과실비율에 대한 올바른 정보로 교통사고 처리가 명쾌해집니다

모바일 APP, 웹사이트, 전화 상담으로 과실비율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과실비율

과실비율 인정기준 APP [구글플레이 & 앱스토어에서 검색]

accident.knia.or.kr [과실비율 정보 포털 접속 후 질문 & 사례집 제공]

02-3702-8500 [과실비율 ARS센터에서 전문 상담인력과 상담]